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遑遑)\*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鈞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  
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흐노라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 / 드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흥'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5.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읽기 전 활동

(가) 작품에 대한 〈보기〉입니다. (가) 작품의 작가인 권호문은 입신양명을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입니다. 모친 사후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권호문은 42세 이후 조정에서 천거되어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삶의 생각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 봅시다.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 하야 십재황황(十載遑遑)\*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하야 여공불급(如恐不及)\*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 하니 못 이룰까 | 하야라  
〈제2수〉

-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과 효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며 충효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공명이 늦었다며 뜻을 못 이루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보았듯이 권호문은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江湖)에 놀자 |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 갈 데 몰라 | 흐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 흐오리라

〈제8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자연에서 놀자고 하니 임금을 저버릴 것 같고, 임금을 섬기자니 즐거움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자연에서의 삶과 정치적 삶을 두고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살피고, 들어오면 달에서 낚시하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군자는 이런 삶을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부귀는 위기라고 하며 빈천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보기〉에서 권호문은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 대목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 흐느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 흐가지라  
은(隱)어나 현(見)\*어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 아무 | 덴들 |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 세상에 나아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남에도 도가 있으니 세상이 자신을 버리면 구태여 구하겠냐며 누가 병들고 늙은 자신을 오라 말라 하겠냐 하고 있습니다. 관직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성현이 가신 길은 한 가지라면서 은둔하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다르지 않다고 아무 덴들 어떻냐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면서 성현의 뜻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속세와 자연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연을 택하는 것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지 않기

에 해석하기에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내용을 토대로 작품 속 화자의 생각을 잘 파악했어야 합니다.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지금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눈깔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스럽고 슬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우리 오누이는 골방에서 손 시리게 떨고 있습니다. 맥락상 장사하러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새벽이나 밤에 오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썽이고 반짝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어머니의 마음이 글썽이고 반짝이고 말하는 것은 눈물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자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한스러운 삶을 살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화자의 정서만 잘 파악하면 읽는 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털위랑 / 드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 지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시의 운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간단한 비문학 지문입니다. (다)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조건 등장할 것인데, (다)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학 읽듯이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한 후, 선지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다르리야’, ‘구태 구허라’ 등의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한이던가’ 등의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것에 대한 한스러움과 슬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대화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가) 작품은 속세를 벗어나고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기에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 등과 같은 시적 공간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 작품은 그러

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지 않습니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제2수>의 '부급동남'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명을 이루기 위해 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급동남'은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명'은 속세에서의 삶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17수>의 '성현이 가신 일'은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공명'과 '성현의 가신 길'은 완전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시어입니다.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작품에서 <제4수>의 '강호'를 선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수>에서 화자는 '부귀 위기'라 빈천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귀 위기'이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가난한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부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4수>의 '기로'는 자연에서의 삶과 속세의 삶 중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수>에서 화자는 성현의 가신 길이 '일도'라며 자연 속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기로'가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화자는 <제8수>의 '빈천거를 흐'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

다. 이는 속세의 삶이 아닌 자연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17수>에서 화자는 은어나 현어나 '도'를 향하는 길이 만고에 한 가지이기에 자연에서의 삶을 살며 '도'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자는 '빈천거를 흐'면서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화자는 <제1수>에서 '충효'를 평생에 원한다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수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이 '충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제1수>에서 화자는 '십재황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년을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기>에서 권호문은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라고 한 것은 쓰이면 세상이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알맞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누가 구태여 자신을 세상에 부르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권호문은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화자는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제16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오라 말라 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고 하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 <제16수>의 '회보미방'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따른다면 화자는 속세의 삶을 사는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해 다 진 어스름'이 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어물전'의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손 안 닿는' '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화자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손 시리게 떨'고 있습니다. 이는 추운 밤 '별 밭' 아래의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한스럽고, 추운 방에서 그러한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이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화자의 어머니는 '진주 남강'을 새벽이나 밤에 왔다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 화자는 '울 엄매'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냐며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썩이고 반짝이던' 것이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 엄매'의 눈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가)의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가 3음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의 내적 규범이 아니라 외적 규범을 지킨 것입니다.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다)에서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의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따른 것입니다.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나)의 1연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라며 울림소리를 반복한 시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림소리를 반복하면 리듬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에서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 어머니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나)에서 '오명 가명'은 'ㅇ'을 반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적 규율이 아니라 내적 규율에 따라 반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침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침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시의 내적 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전 시가의 리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